



안산 대부해솔길 해안선 따라서 대부도 전체를 둘러본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 볼 수 있는 산책길이다.

총 7개 코스, 74km로 대부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면서 걸을 수 있다.

방아머리 선착장을 시작으로 구봉도, 대부남동, 선감도, 탄도항을 거쳐 대송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제1코스로, 방아머리에서 돈지섬안길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대부도관광안내소를 출발해 24시 횡집에 이르는 1코스는 대부해솔길의 백미. 넓게 펼쳐진 서해 갯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바다와 어우러진 빼빼한 해송숲도 볼거리다.

바닷길을 개미허리다리로 연결해 놓은 낙조전망대는 낙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사진작가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코스다.

바닷길을 간널 수 있는 산책로로 매우 인기가 높다.

대부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대부해솔길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소나무숲길, 염전길, 석양길, 바닷길, 갯벌길, 포도밭길, 시골길 등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해 갯벌과 철새도 만날 수 있어 여름철에는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북망산과 구봉도, 개미허리아치교, 낙조전망대의 조망이 빼어나고 구봉약수터의 건강약수도 반긴다.

북망산과 구봉산, 돈지섬 세 곳의 산을 넘나들지만, 높이가 낮고, 오르내리기도 수월하다.

누에섬, 쪽박섬의 낙조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탈리아 유리공예의 중심 무라노에 빚대어 '한국의 무라노'라고 불리는 대부도 유리섬박물관에 가면 '한국인들은 못 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유리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야외작품과 갈대를 배경으로 사진찍기도 좋다.

이 섬 끝자락에 있는 탄도항의 썰물 때 들어갈 수 있는 누에섬 등대전망대는 대부도 아름다운 여행의 화룡점정을 찍는다. ⑦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
편리하고 문화가 숨 쉬는 **일품도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시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



생태

혁신

협치

존엄

상생

안전